

# 레지오넬라증

## Legionellosis

- 레지오넬라 균종(*Legionella species*)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
-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에서 잘 발생하고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폰티악열 형태로 주로 발생

### 주요 원인 및 감염 경로

- 하천, 호수, 토양 등의 자연환경, 냉·온수시설, 목욕탕 및 수영장, 스파·월풀, 냉방시설 냉각탑수, 분수대, 가습기, 치료용 분무기, 호흡기 치료 장치 등으로 인해 감염될 수 있음. 특히 따뜻한 물로 채워진 냉각탑이나 응축기는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
- 가정용 배관시설, 식료품점 분무기, 자연 및 인공온천 등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도 감염원이 될 수 있음
-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이 아주 작은 물 분무 입자의 형태로 공기 중에 퍼졌을 때 이를 사람이 들이 마시면 호흡기를 통해 균이 침투하여 질병을 유발
- 보통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하며, 냉방장치 냉각수 등의 청결상태가 불량하면 레지오넬라균이 냉각수에서 번식하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'여름 감기'에 걸렸다면 레지오넬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
- 사람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음
- 고위험군 : 만성폐질환자, 당뇨병환자, 고혈압환자, 흡연자, 면역저하환자 등에서 쉽게 발생
- 25~45°C의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하며, 수돗물이나 증류수 내에서 수 개월 간 생존할 수 있고 온수기, 에어컨의 냉각탑, 가습기, 온천, 분수 등에도 존재





### 레지오넬라 폐렴(레지오넬라증)

• 잠복기 : 2~10일, 평균 7일

## 주요 증상

### • 주요증상

- 발열과 함께 폐에 염증이 생겨서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
- 발병 초기에는 밥맛이 없고, 전신 권태감과 허약감이 있으며, 머리가 아프고, 온몸이 아픈 증상을 보임
- 이후 오한과 함께 39~40.5°C의 고열이 나타남
-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이 나고, 설사, 오심, 구토나 복통 증상
- 발병 3일째부터 가슴 X-ray 검사에서 폐렴 증상이 보임
- 완전히 치료되기까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후부터 1~4개월까지 걸릴 수 있음
- 폐의 병적인 변화가 점차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수도 있음
- 합병증으로 폐농양, 호흡부전, 저혈압, 쇼크, 신부전, 심근염, 신우신염, 부비동염이 있음

### 폰티악열(독감형)

• 잠복기 : 24-48시간, 평균 36시간

### • 주요증상

- 짧은 잠복기의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1주일내 자연 회복 가능
- 권태감과 근육통으로 시작하여 갑작스러운 발열 및 오한이 동반
- 마른 기침, 콧물, 인후통, 설사, 오심,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냄
- 레지오넬라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흉부 X-ray의 이상 소견은 없음
- 사망을 초래하는 일은 드물게 나타남



## 예방조치 및 관리 수칙

- 냉각탑, 저수탱크, 에어컨 필터, 물받이 등의 청소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
- 가습기 사용 시 신선한 물을 사용하여 매일 교체하고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, 청소 이후에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 권장
- 냉각탑은 1년에 2~4회 주기적으로 청소하며, 염소 처리, 고온 살균법, 자외선 조사, 오존 처리, 구리-은 이온화법 등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할 것
- 병원 내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에 대해 멸균수를 사용하거나 소독하여 사용하고,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감시 배양하여 오염 여부를 측정
-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세척을 실시하고 2분이상 물을 흘려보낸 후 사용 권장



## 관련 법령 등
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 
직업성 질병(제2조 관련)
- 20.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(legionellosis)